

임금 부담 줄이고 근로자도, 기업도 모두 만족 할 수 있게 된 사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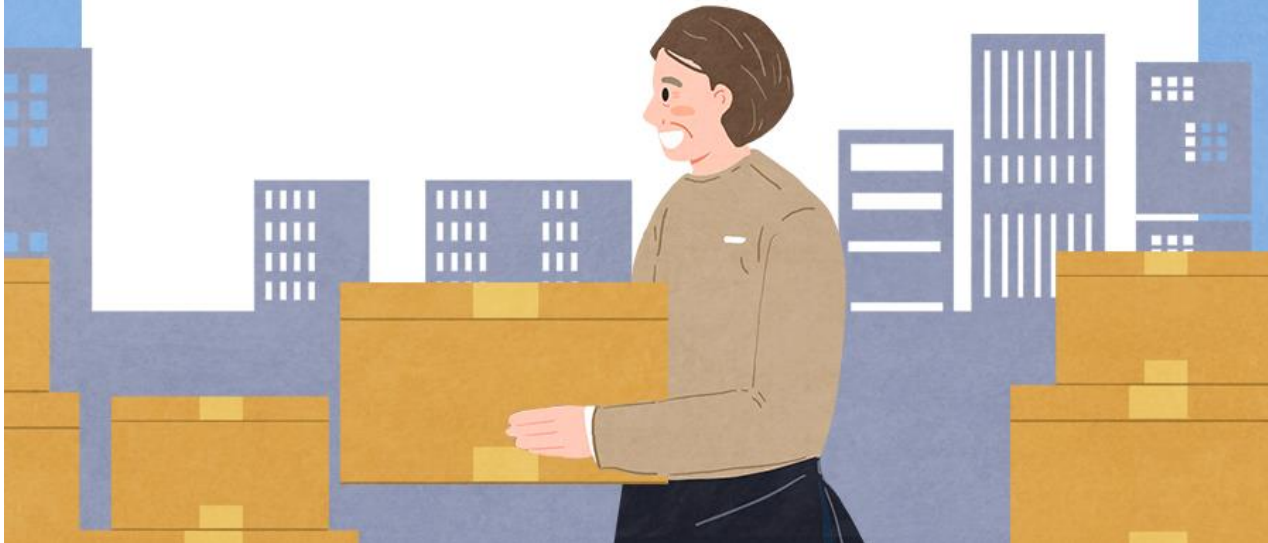
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



근로자는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었으나 회사는 임금 인상 부담에 망설이고 있었어요.

“ 컴퓨터부품 소매업체 B사는 택배 포장 등
직무가 어렵지 않아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
계속 고용하고 싶었습니다.

하지만 연공급 임금체계로 임금 부담에 망설이고 있었는데,
계속고용장려금을 활용하여 임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
60세 정년을 폐지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습니다. ”



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로 숙련·경력을 갖춘 인력을 계속 확보할 수 있었어요!

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란

정년을 운영 중인 중소·중견 기업이

- 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거나, ② 정년을 폐지하거나
③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3개월 이내
재고용하여 1년이상 계속고용하는 제도를 둘 경우 지원



1인당 최대
720만원 지원 (2년간)



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

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으로 고용이 늘어났어요!

고령자 계속고용
장려금 성과



690명 고령자
계속 고용 ↑

“올해는 지원이
더 늘어나요!”



2,000명
이상 지원

기업과 중장년의 성공파트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으로 일자리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


더 자세한
문의는?



국번없이 1350



고용노동부 누리집

(www.moel.go.kr) 정책자료실 → 중장년정책